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9년 **12** 월

keri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9년 12월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5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37
제 3 장	1999/2000년 경제전망	43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59

부록

경제정책정보	71
주요경제통계	74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 수 희
권 영 민
남 광 희
남 주 하
이 인 실
황 인 학
김 주 호
김 창 배

선임연구위원

<가나다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산업생산/고용/소비/투자/경기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국제수지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부동산가격/명목임금
4. 통화·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금리/환율 및 외환보유고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미국/일본/EU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1999/2000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통화정책/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금리/환율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 주요 경제현안 및 향후 정책방향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3/4분기)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과 수출호조로 상반기중 빠른 회복세를 보인 우리 경제는 3/4분기 설비투자와 수출신장세의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
-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세가 내구재(55.3%), 준내구재(11.9%), 서비스(7.7%) 등 모든 부문에 확산되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2/4분기 9.1%에서 10.3%로 확대.
- 설비투자(48.0%)는 기계류 전반에 대한 투자(37.3%)가 지난 분기의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자동차, 선박, 운수장비투자(96.5%)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증가세가 더욱 확대.
- 건설투자(-10.0%)는 사무실, 아파트 건설부진에 따라 건물건설투자(-29.7%)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증가세(7.3%)도 감소하여 전분기보

다 감소 폭 확대.

- 99년 상반기중 감소세를 보이던 순수출이 3/4분기중에는 상품수출(25.3%)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출(4.1%)이 증가세로 반전되는데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됨. (1/4분기(-15.3%) --> 2/4분기(-4.3%) --> 3/4분기(6.1%))
- 정부소비(-1.3%)는 인력감축 및 경상경비예산의 긴축운용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1/4~3/4	연간	1/4	2/4	3/4	1/4~3/4
국내총생산	-6.0	-5.8	4.5	9.9	12.3	9.0
민간소비	-10.5	-9.6	6.2	9.1	10.3	8.5
정부소비	0.0	-0.1	-1.7	-2.3	-1.3	-1.7
건설투자	-8.8	-10.2	-13.7	-8.5	-10.0	-10.5
설비투자	-41.4	-38.5	12.9	37.2	48.0	32.2
총수출	15.1	13.3	10.3	15.1	22.2	15.9
총수입	-26.2	-22.0	27.0	26.9	32.0	28.6

자료: 한국은행

산업생산

- 산업생산은 내수신장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17.6%, 3/4분기 26.8%에 이어 10월중에도 30.6%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사무회계용기계 등의 중화학공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대부분의 경공업도 호조를 지속.
- 출하는 내수신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더욱 확대되면서 상반기 19.3%, 3/4분기 27.7%에 이어 10월중에도 33.2%의 높은 증가세 지속.
- 생산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전년동기대비 재고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는 5월 이후 플러스 증가율이 지속.
- 7월중 80.8%를 기록하면서 97.8월 이후 처음으로 80%대 진입했던 평균가동률은 과업(운송장비, 기계장비)과 설비보수(석유정제) 그리고 사무회계용기계와 자동차 등의 생산능력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 80%대 하회 지속.
- 10월 생산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추석반등요인 때문이며 이 효과를 제외하면 생산은 24.0%증가.

<표 2>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97	98	99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생 산	생 산	5.3	-7.3	12.5	22.7	26.8	18.3	30.6
	· 중 화 학	9.3	-4.8	16.6	27.5	31.9	23.1	34.7
	· 경 공 업	-6.3	-16.0	-0.1	9.5	12.0	3.5	18.4
	출 하	6.8	-7.1	14.1	24.4	27.7	19.9	33.2
	· 내 수	1.2	-23.0	8.8	20.6	26.1	15.3	28.0
	· 수 출	22.2	28.5	21.9	29.7	29.4	26.2	39.5
	재 고	5.2	-17.3	-18.5	-16.7	-9.8	-9.8	-5.7
	(계절조정 전월비)	(5.2)	(-17.3)	(-8.9)	(-0.1)	(3.8)	(2.9)	(2.1)
	평 균 가 동 률	79.0	68.1	71.3	76.8	79.5	79.0	78.6

주 : 재고는 기말기준

자료: 통계청

고용

- 2/4분기 이후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비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하향추세를 지속, 10월에는 4.6%로 낮아지는 등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

<표 3> 고용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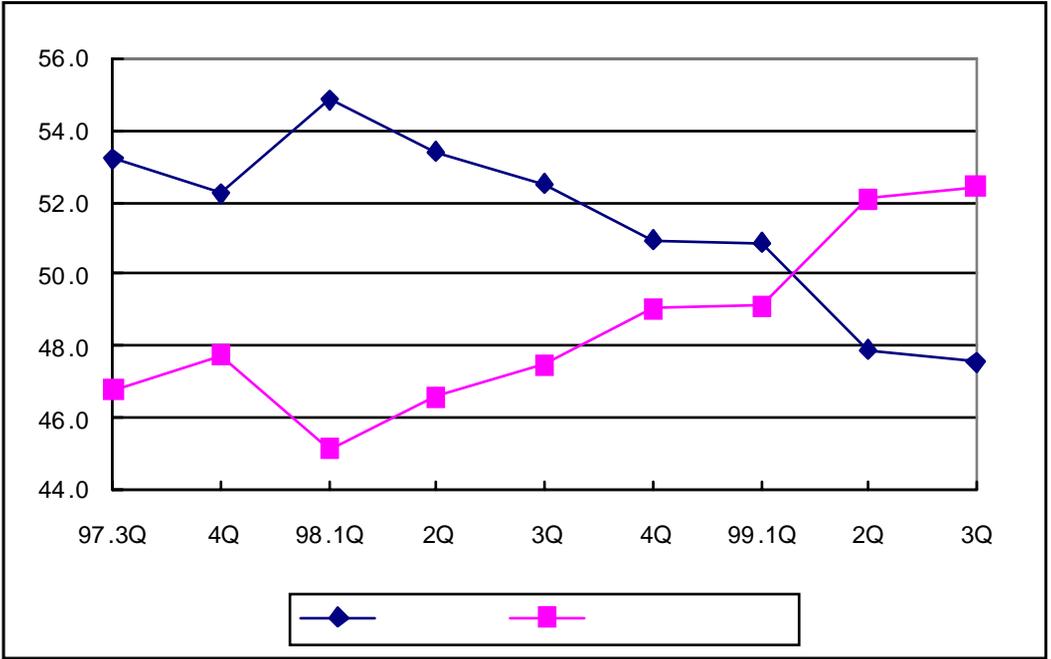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경제활동참가율(%)	62.2	60.7	58.6	61.0	61.2	61.2	60.8	61.6	61.8
취업자(천 명)	21,106	19,994	19,105	20,362	20,695	20,558	20,527	21,000	21,115
취업자증가율 ¹⁾	1.4	-5.3	-3.3	0.6	3.2	2.4	2.9	4.4	4.5
농림어업	-1.8	4.0	-12.1	-7.5	-3.8	-4.6	-3.9	-3.0	-1.9
제조업	-4.5	-13.0	-6.6	1.7	7.1	5.4	7.2	8.8	9.0
건설업	1.7	-21.3	-24.0	-8.7	2.0	0.5	2.1	3.5	4.3
실업자(천 명)	556	1,461	1,748	1,435	1,220	1,349	1,241	1,069	1,021
실업률(%)	2.6	6.8	8.4	6.6	5.6	6.2	5.7	4.8	4.6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 그러나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일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등 고용구조가 IMF이전에 비해 불안한 모습.
-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3/4분기중 53.2%이던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99년 3/4분기에 47.6%로 하락한 반면 임시 및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은 97년 3/4분기 46.8%에서 99년 3/4분기에는 52.4%로 증가.

<그림 1>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추이



소비

- 지난해 급속히 위축되었던 소비가 금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내구재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도소매판매액이 3/4분기 16.8%에 이어 10월에도 15.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용소비재출하도 자동차,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 확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 지속.
- 소비의 빠른 회복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산 및 근로 소득증가와 고용불안감 해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된데다 지난 해의 과도한 위축으로 이연시켰던 소비가 금년

중에 행해지는 소비의 이연효과가 작용했기 때문.

<표 4>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97	98	99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도소매 판매	3.2	-12.7	6.0	10.8	16.8	13.9	15.7
· 도매	3.2	-8.3	3.9	10.2	14.7	10.5	13.1
· 소매	4.5	-11.1	3.9	8.1	12.9	14.0	11.9
내수용 소비 재출하	-1.8	-21.4	13.1	17.1	23.8	18.2	26.2
· 내구재	4.3	-28.5	39.3	32.3	60.7	50.2	54.8
· 비내구재	-4.5	-17.4	3.2	10.4	8.7	4.5	12.9

자료: 통계청

투자

- 금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된 설비투자지표들이 하반기중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

고 있음.

-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컴퓨터, 정밀기기 및 특수목적용 기계 등의 투자 증가로, 기계류내수출하는 자동차, 기계장비 및 사무회계용기계 등의 투자증가로 그리고 기계류 수입액은 산업용기계, 정밀기기 등의 투자증가로 3/4분기와 10월중에도 40~50%대의 높은 증가세 지속.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운수업 및 전력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발주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주증가로 높은 증가세 유지.

<표 5>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국내기계수주	3.3	-30.5	16.9	38.5	22.1	9.2	24.2
공공	-2.5	-45.1	5.8	78.4	-0.4	1.5	-0.9
민간	4.6	-27.3	18.5	33.2	26.5	10.3	28.0
기계류내수출하	1.2	-38.0	1.0	34.8	44.4	27.4	45.5
기계류수입액	-22.8	-52.9	7.9	20.2	45.5	48.0	58.4
설비투자추계	-6.8	-38.7	10.9	42.4	53.2	41.8	51.2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4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다 최근 추석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증가세가 주춤.
-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상승세를 지속.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

문의 발주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발주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됨. 건축허가면적도 공업용 허가면적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상업용 및 주거용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확대.

<표 6>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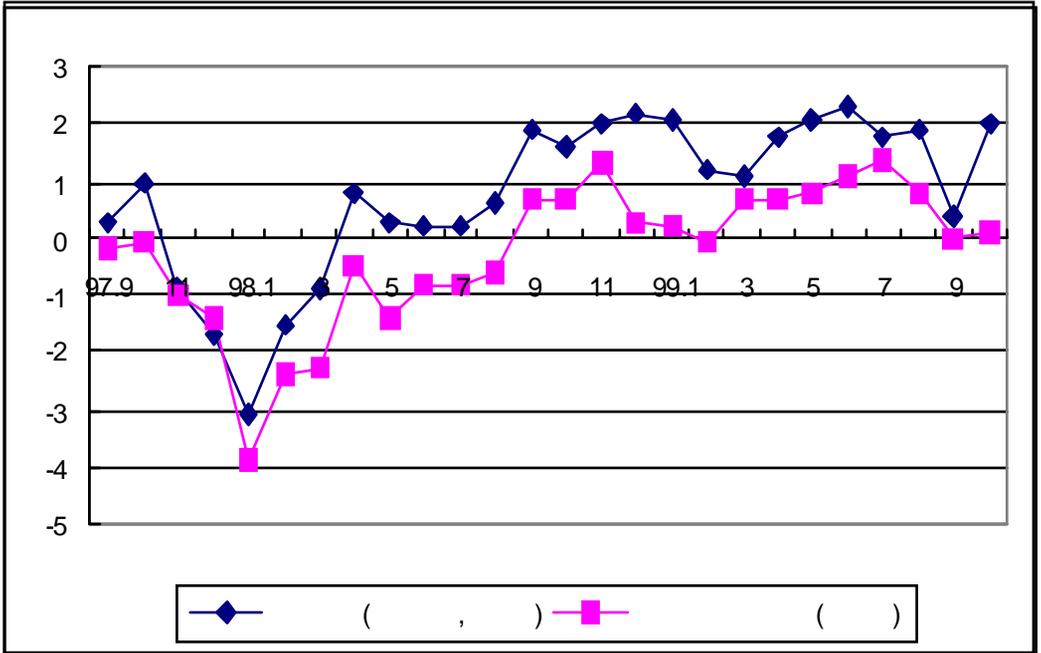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국내건설수주	5.4	-42.5	-45.3	27.5	13.4	36.5	33.9
공공	7.6	-21.4	-53.8	-12.4	-34.8	-33.0	-49.9
민간	-5.9	-57.6	-30.7	66.2	93.5	168.9	287.6
건축허가면적	-0.4	-55.0	-45.8	22.4	76.6	81.6	277.7
공업용	-26.2	-68.2	24.2	177.0	242.6	204.5	355.2
건설기성	-	-	-1.0	3.8	3.7	-2.9	0.6

자료: 통계청

경기

- 하반기 들어서도 내수호조와 수출신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관련지표의 움직임도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현재의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지속.
- 또한 선행지수의 전월비 증가율도 견조한 상승세 지속.
- 다만, 실물경기지표의 호전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 8월 이후 경기 종합지수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최근 경기종합지수의 추이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

- 수출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3/4분기중 감소세를 보이던 통관기준 수출입차가 다시 확대.

<표 7> 수출입(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

	97년	98년		99년					
	연간	1~11월	연간	1/4	2/4	3/4	10월	11월	1~11월
수출입차(통관)	-84.5	254.4	390.3	46.8	70.4	54.3	20.9	25.2	217.6
수출(통관)	1,361.6	1,198.9	1,323.1	302.5	357.8	351.4	134.4	142.6	1,288.7
증가율	5.0	-3.1	-2.8	-6.1	2.6	15.3	26.4	22.2	7.5
수입(통관)	1,446.2	846.3	932.8	255.7	287.4	297.1	113.5	117.4	1,071.1
증가율	-3.8	-37.0	-35.5	8.1	22.0	38.4	48.4	41.0	26.6

자료: 산업자원부

- 10월과 11월의 수출증가율은 3/4분기(15.3%)에 비해 확대된 26.4%, 22.2%를 기록. 특히 11월 수출규모(142.6억달러)는 월중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규모.
-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 LCD, 반도체 등이 꾸준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 상반기 기준 부진하던 석유화학과 경공업제품이 하반기 들어 유가상승과 엔고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최근에는 철강제품도 증가세를 보임. 반면 그동안 호조를 보여 오던 자동차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했으며 선박의 부진은 지속.
- 지역별로는 對선진국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부진하던 개도국 수출도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반전.

<표 8> 품목별 수출과 용도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1999년				
		상반기	3/4분기	10월	11.1~20	1.1~11.20
품 목	○ 중화학	50,035(3.4)	27,171(22.7)	10,518(31.2)	6,199(45.3)	93,928(13.5)
	- 반 도 체	9,029(12.9)	4,638(13.5)	1,769(17.6)	1,035(6.8)	16,468(13.1)
	- 자 동 차	5,042(9.2)	2,849(41.0)	926(-10.5)	320(-2.5)	9,186(14.9)
	- 철강제품	3,298(-23.1)	1,759(-9.0)	577(0.0)	286(8.7)	5,925(-16.0)
	- 석유화학	3,092(-10.5)	1,824(17.1)	731(35.9)	390(21.2)	6,027(2.7)
	- 선 박	3,252(-15.1)	1,247(-14.4)	424(-10.8)	343(73.4)	5,256(-11.8)
	○ 경공업	12,324(-2.8)	6,756(5.1)	2,418(25.2)	1,473(27.6)	22,944(3.4)
	- 섬유직물	4,287(-7.3)	2,334(5.6)	862(32.2)	538(38.6)	8,016(1.8)
	- 섬유제품	2,650(5.8)	1,691(4.2)	539(24.4)	330(17.5)	5,196(7.3)
지 역	○ 선 진 국	33,270(3.9)	17,313(18.6)	6,983(27.8)	4,366(40.0)	61,948(12.2)
	○ 개 도 국	32,964(-6.0)	17,655(11.0)	6,454(24.9)	3,688(23.1)	60,723(2.7)
	- 중 국	6,341(1.8)	3,352(27.2)	1,295(39.7)	803(38.7)	11,783(13.6)

자료: 산업자원부

- 수입은 10월과 11월중 4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5월 이후의 급증세가 지속.
- 용도별로는 생산,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세의 영향으로 자본재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재와 원자재도 내수경기회복과 국제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세.

<표 9> 용도별 수입

단위 : 전년동기비(%)

		1998	1999				
		연간	상반기	3/4	10월	11.1~20	1.1~11.20
수입	원자재	-34.7	8.1	29.1	43.9	40.2	19.1
	자본재	-36.8	25.5	52.8	55.0	48.3	37.2
	소비재	-41.1	15.8	37.1	46.6	52.6	26.4

자료: 산업자원부

국제수지

- 경상수지가 9월과 10월중 각각 24.3억달러와 21.0억달러 흑자를 보임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13.1억달러.
- 하반기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3/4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엔화강세의 지속, 선진국 및 동남아국가의 해외수요 증가, 그리고 대만지진 등으로 수출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 그러나 수입급증세가 지속되면서 흑자규모 증가는 제한적임.
- IMF자금 조기상환(8월중 16.1억달러, 9월중 17.5억달러)과,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하반기중 큰 폭의 유출초를 보이던 자본수지가 10월중에는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적자폭이 축소.

<표 10> 국제수지

단위 : 억달러

	97년	98년		99년						
	연간	1~10월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0월
경상수지	-81.7	346.2	405.6	61.9	63.8	66.4	14.1	24.3	21.0	213.1
상품수지	-31.8	350.0	416.3	67.8	80.1	71.9	16.2	26.2	27.1	246.9
서비스수지	-32.0	7.7	6.3	-1.2	-4.9	-2.9	-1.4	-0.6	-0.4	-9.4
소득수지	-24.5	-40.1	-50.5	-10.2	-15.8	-7.3	-2.3	-2.4	-6.4	-39.6
경상이전수지	6.7	28.5	33.5	5.5	4.4	4.6	1.6	1.0	0.6	15.2
자본수지	13.1	-30.2	-32.5	10.1	-6.2	-44.7	-16.9	-24.9	-6.5	-47.4

자료: 한국은행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 8월중 전월대비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11월중에는 전월비 0.2% 하락세로 반전.
- 이는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추석 등으로 인한 공급차질로 8월 이후 큰 오름세를 보이던 농수산물가격이 과일 수확기 공급물량 증가로 하락세로 반전되고 국제유가 상

승에 따른 유류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보약가 인하, 특소세 폐지를 앞둔 일부 가
전제품가격의 조기 인하 등의 영향으로 공산품가격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

- 생산자물가는 11월중에도 0.6%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폭
은 둔화되는 모습.

<표 11>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상반	3/4	10월	11월	1~11월	전월비			전년말월비
								9월	10월	11월	11월
소비자물가	4.5	7.5	0.6	0.7	1.2	1.4	0.8	0.3	0.8	-0.2	1.5
농축수산물	3.8	6.0	8.8	5.7	6.8	6.4	7.5	0.8	1.7	-2.3	5.6
공산품	4.3	11.2	-0.4	1.2	1.9	1.7	0.4	0.3	1.3	-0.1	2.1
공공서비스	5.1	9.5	2.6	1.1	1.5	3.1	2.1	0.0	0.6	1.5	3.1
개인서비스	5.3	5.3	-1.3	-0.8	-0.6	-0.4	-1.0	0.1	0.0	0.1	-0.2
생산자물가	3.9	12.2	-3.4	-1.9	-0.2	0.6	-2.3	0.5	1.0	0.6	1.2
농축수산물	1.9	3.9	15.9	5.7	4.1	2.8	10.7	0.3	-2.4	-0.5	0.7
공업제품	3.4	14.5	-5.2	-2.8	-0.5	0.4	-3.6	0.7	1.6	0.7	1.3
서비스	5.4	8.1	-3.5	-1.4	-0.5	-0.2	-2.4	0.1	0.3	0.1	0.3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입물가

- 국제유가상승, 반도체가격상승의 영향으로 8월중 전월대비 증가세로 반전된 수출물
가는 11월중 석유화학, 고무제품 등의 수요부진과 환율하락으로 전월비 1.5%하락세

로 반전.

- 수입물가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국제가격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11월중 환율하락으로 전월비 0.7% 하락.

<표 12> 수출입물가(원화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1998		1999					
	1~11월 ¹⁾	연간	1/4	2/4	3/4	10월 ²⁾	11월 ²⁾	1~11월 ¹⁾
수출물가	-11.5	31.3	-32.9	-19.0	-11.5	-9.6(3.3)	-7.2(-1.5)	0.0
수입물가	-7.9	28.2	-28.1	-14.6	-4.0	-1.5(3.3)	1.8(-0.7)	9.6
원자재	-10.6	27.9	-31.7	-16.5	-3.8	0.0(3.9)	4.1(-0.6)	13.1

주: 1) 전년말월비 증가율

2) ()내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가격

- 99년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로 전환됨.
- 10월중 전도시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1%, 1.0%상승에 그침.
- 특히 큰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비 0.1%감소했으며 아파트 전세가격의 오름세도 크게 둔화됨.

<표 13> 부동산가격 추이

단위 : 전월(년)비, %

		1998	1999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주택매매가	전도시	-12.4	1.2	0.2	0.3	0.1	0.2	0.0	0.3	0.6	0.7	0.1	4.0
	서울(아파트)	-14.6	3.1	0.4	0.7	0.5	0.8	0.7	1.6	2.3	1.8	-0.1	12.5
주택전세가	전도시	-18.4	2.1	2.8	2.0	1.4	1.1	0.6	0.8	1.6	2.4	1.0	16.9
	서울(아파트)	-22.4	5.0	6.4	3.3	2.1	1.8	1.4	1.9	3.6	4.1	0.5	34.2

자료: 주택은행

명목임금

- 3/4분기중에도 1인당 명목임금(전산업)은 전년동기비 15.6%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1~9월중 10.6% 상승.
- 99년중 명목임금의 상승은 정액급여보다는 초과근로시간증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과 특별급여의 증가에 기인.

<표 14> 명목임금(전산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1999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9월
1인당 임금	5.6	10.6	15.6	13.7	12.0	11.4	22.8	10.6
정액급여	3.3	6.3	5.9	7.2	5.2	5.7	6.8	5.1
초과급여	20.8	33.6	32.4	40.8	33.5	32.9	30.7	29.1
특별급여	8.9	19.9	47.2	24.8	10.6	29.1	70.4	25.3

자료: 노동부

4. 통화 · 금융부문

통화정책

- 통화당국은 1999년중 금리안정을 위해 신축적인 통화기조를 유지.
- 특히 하반기에는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임에 따라 통화공급을 늘리고 국채발행을 연기하는 등 금리하향안정화에 노력.
- M2증가율은 1999년 들어 증가세를 보이다 4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
- 이후 8월 들어 대우그룹 워크아웃 진입의 영향으로 투신권을 이탈한 단기부동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총통화증가율은 다시 상승추세.

- M3증가율 역시 1999년들어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 14.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
- 이는 실물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의 불안감을 우려,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비축해 1998년중 M3 수준이 높았던데 따른 반사효과의 결과.
- 또한 1999년 들어서도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신규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M3 증가를 주도해온 투신사 수신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
- 대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축소노력으로 신규차입을 억제하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이후 기업 금융행태가 크게 변화.
- MCT 증가율은 1999년 들어 4월까지의 점진적인 증가세,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8월 이후에는 M2증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지속적인 상승세.

<표 15> 주요 통화총량 추이

단위 : 평잔, 전년동기대비, %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p	11.25p
본원통화	-15.0	-7.2	-8.7	4.4	7.2	10.9	12.0	13.3	15.4	16.2	22.3	12.2	19.2
M2	19.2	19.1	26.3	29.9	33.7	34.6	30.6	27.4	24.2	24.8	26.6	24.1	26.7
MCT	15.3	7.6	3.1	4.9	6.9	6.9	6.3	5.9	6.1	7.8	10.0	10.0	11.5
MCT ⁺¹⁾	18.1	7.4	2.0	2.4	3.5	3.5	2.9	2.9	3.1	5.2	7.9	8.7	10.5
M3	16.3	12.8	13.1	13.8	14.1	13.9	13.3	12.7	11.5	10.4	9.6	-	-

주: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한국은행

- 투신사 이탈 자금이 은행의 예금 및 단기성 수신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기인.

기업자금사정

- 기업자금사정은 경기상승에 따른 매출 호조와 더불어 은행대출이 증가한 반면 신규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비교적 원활하였음.
- 회사채발행은 상반기에는 순증하였으나 하반기들어 투신사의 수신감소 여파 등으로 기관들의 회사채 인수여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감소세.
- CP 발행도 2/4분기중 20조원이나 순상환되는 등 연간 전체적으로 위축.
- 반면, 기업들의 은행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로 신탁계정 대출은 감소한 반면 은행계정에서 일반자금대출이 크게 늘고 있고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도 증가.
- 이는 투신사의 회사채 인수여력이 줄어든 데다 회사채 발행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CP 및 회사채 발행수요 일부가 은행대출로 바뀌고 있는 데 기인.

<표 16> 기업의 직접금융¹⁾을 통한 자금조달 및 은행대출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억원

	98.12	99.1/4	2/4	3/4	10	11 ⁴⁾
회사채 발행(순)	15,317	30,621	24,799	-21,316	-13,399	-11,646
CP 발행(순)	-155,653	211,341	-206,962	-50,988	-2,278	-4,753
주식 발행 ²⁾	7,794	27,387	74,255	49,210	6,061	17,130
은행대출	-37,794	33,107	108,106	183,762	60,058	37,929
은행계정	-18,906	65,268	135,826	206,509	67,464	45,396
(상업어음할인)	14,687	-10,656	9,993	21,369	13,084	7,998
(무역금융)	755	5,641	9,992	8,882	2,623	4,761
(당좌대출)	-18,366	8,449	-9,364	7,832	322	-2,904
(일반자금)	1,870	38,890	93,593	154,838	44,307	28,242
신탁계정 ³⁾	-18,888	-32,081	-27,720	-22,747	-7,406	-7,467

주 : 1) 8월 이후 대우그룹분 제외
 2) 금융기관 발행분 제외,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 기준
 3) CP할인 제외
 4) 99.11.1~25일중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 기업의 양호한 자금수요를 반영해 당좌대출 소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
- 은행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중 회사채 발행과 금년 상반기 중 주식발행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

- 다만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는 계속되고 있는 바, 투기등급인 BB급 이하 업체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등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경기호황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증가에 의한 가계대출도 꾸준히 증가.

<표 17> 은행대출추이

단위 : 증감액, 억원

	98.12	1999				
		1/4	2/4	3/4	10월	11월
은행(신탁포함)대출	-37,794	33,107	108,107	183,762	60,058	37,929
대기업대출	-32,179	3,222	-14,285	43,187	13,405	6,000
중소기업대출	-2,761	12,320	45,181	77,285	26,557	16,000
가계대출	2,351	2,877	59,534	155,660	19,055	13,000

자료: 한국은행

- 금액기준 전국어음부도율은 1999년 상반기에는 1998년도 연간수치인 0.38% 보다 낮았으나 8월이후 대우사태의 여파로 급증.
- 이후 대우그룹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10월부터 전국 어음부도율은 다시 하락.
- 1997년과 1998년 저조하였던 신설법인/부도법인의 비율이 1999년들어 경기활성화와 함께 벤처기업 등 기업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표 18 > 전국 어음부도율(금액준)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어음부도율 ¹⁾	0.40	0.54	0.43	0.41	0.17	0.38	0.11	0.12	0.09	1.12	1.12	0.57	0.39
서울	0.36	0.43	0.32	0.35	0.13	0.30	0.09	0.11	0.09	1.21	1.25	0.62	0.42
전국부도업체수	17,168	9,449	6,357	4,221	2,801	22,828	1,932	1,662	519	482	476	565	475
서울	6,686	3,315	2,278	1,493	1,022	8,108	721	651	204	164	181	211	185
신설법인/부도법인 ²⁾	3.4	1.5	2.3	3.3	5.5	2.6	10.1	12.0	14.8	15.8	13.5	12.8	13.8

주 : 1) 전자결제액 조정, 금융기관 어음부도액 제외
 2)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 1999년 1/4분기까지 시중자금은 투신권의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은행권의 저축성 예금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2/4분기 들어 주식시장 활황이 지속되자 시중자금이 주식관련 상품으로 유입.
- 하반기들어 대우그룹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투신권에서 자금이 이탈하여 상당부분이 은행의 단기성수신으로 유입되거나 주식관련 간접투자상품으로 이동.

-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3/4분기에만 26조9,216억원이나 증가.
-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3/4분기중 37조3,546억원 감소했으며, 4/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주식형 수익증권은 3/4분중에만 11조원이상 증가.

<표 19>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98.12 (잔액)	99.1/4	2/4	3/4	10월	11월	12월 ¹⁾ (잔액)
은행	요구불	216,454	-21,175	24,583	7,631	-6,992	1,215	228,094
	저축성	2,129,251	197,856	-733	269,216	64,808	98,819	2,831,346
	CD순발행	91,856	-4,399	34,304	-31,523	8,620	-5,765	86,611
	금전신탁	1,558,990	-145,396	-17,713	-76,578	-36,637	-56,584	1,195,972
	소계	3,996,561	26,886	40,441	168,746	29,799	37,685	4,342,023
투신사 ²⁾	공사채형	1,835,392	362,923	-82,397	-373,546	-225,215	-109,850	1,366,248
	(장기)	951,264	143,797	9,282	-148,311	-143,122	-60,040	695,473
	(단기)	884,128	219,126	-91,679	-225,235	-82,093	-49,810	670,775
	(MMF)	133,018	71,048	115,498	-101,144	2,833	12,653	247,003
	주식형	83,155	39,874	184,412	139,924	110,765	10,513	563,388
소계	2,051,565	473,845	217,513	-334,766	-111,617	-86,684	2,176,639	
증권	고객예탁금	37,773	15,524	28,159	24,761	-27,990	17,867	104,080
	RP	25,247	-4,157	-4,529	-3,196	1,767	-2,416	12,835
	상품증권	131,393	-10,662	46,113	-10,228	-24,058	6,460	139,017
	차입금	151,922	-35,188	113,100	-71,585	9,814	31,177	199,240
종금	자발어음	223,016	-6,392	14,722	-4,277	5,703	5,727	152,286
	CMA	64,900	-5,906	-14,964	9,549	1,665	5,114	45,690
	어음매출	116,137	20,658	-39,941	-25,641	-11,479	-5,774	32,719
	소계	404,053	8,360	-40,183	-20,369	-4,111	5,067	230,695
	어음할인	218,308	-15,705	-48,716	-14,499	-8,220	-7,255	118,770

주: 1) 99.12.16잔액
 2) 14개 종금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

- 1999년들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주식관련 금융상품으로 64조원이 넘는 시중부동자금이 이동.
- 1998년말 3조7,773억원에 불과하였던 고객예탁금이 10조원대에 진입하기도 하였으며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표 20> 주식형 금융상품 추이

단위 : 증감액,

	99.1/4	2/4	3/4	10	11	12 ⁴⁾ (잔액)
주식형수익증권	39,874	184,412	139,924	110,765 ³⁾	10,513	565,092
뮤추얼펀드 ¹⁾	6,112	19,814	17,227	1,818	618	51,603
단위금전신탁 ²⁾	-	78,067	27,981	4,711	6,8914)	143,942 ⁴⁾
간접투자상품계	45,986	282,293	185,132	117,294	18,022	760,637
고객예탁금	15,524	28,159	24,761	-27,990	17,867	101,698

주 : 1) 납입액 기준 2) 주식투자가 가능한 성장형 및 안정성장형 기준
 3)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전환분(10조 2,876억원) 제외
 4) 주식형수익증권과 고객예탁금은 18일, 뮤추얼펀드 14일, 단위금전신탁은 14일, 기준일

- 1999년중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활발하였음.
- 2/4분기와 3/4분기중 각각 9조2,108억원과 14조7,136억원을 기록하였던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규모는 4/4 분기중에도 7조원을 상회.

- 특히 기업공개가 매우 활발하여 1998년 367조에 불과하던 기업공개 규모가 1999년에는 15조3,576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
- 연간 전체 1999년 기업공개와 유상증자규모는 1998년의 2.4배 증가.

<표 21>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98	99.1/4	2/4	3/4	4/4(P)	연간
유상증자	134,520	52	70,853	40,126	62,827	173,858
기업공개	367	15,373	21,255	107,010	9,938	153,576
소 계	134,887	15,425	92,108	147,136	72,765	327,434
고객예탁금 잔액	37,773	53,296	81,456	106,216	104,080	104,080
신용융자잔고	4,674	5,662	7,869	8,565	5,200	5,200

주 :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장단기 금리

- 콜금리는 제2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신축적인 RP운용, 자금의 단기화 현상 지속 등으로 3월 이후에는 5%이하에서 안정적인 모습.
- 그러나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자별 금리 차별화 현상 심화.
- 지난 4월 월평균 기준 7.52%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던 회사채유통수익률은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자금 이탈로 채권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 8월들어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감과 더불어 예상외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시중자금의 단기화 심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회사채수익률은 월평균 기준 10.26%까지 상승.
- 하반기들어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섯차례나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투신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였음.
- 8월 13일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일시에 대규모 환매 요구 집중 가능성에 따른 11월 금융대란설 마저 확대.
- 그러나 정부의 추가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더불어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의지를 표명으로 큰 혼란은 없었음.

<표 22> 주유시장금리추이

단위 : 기말기준, 연%

	97년	98년	99년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¹⁾
콜(익일) (A)	31.32	6.48	6.00	5.04	4.85	4.75	4.74	4.85	4.69	4.69	4.73	4.65	4.65	4.70
CP(91일)	40.77	8.06	7.25	7.05	7.02	6.07	6.45	6.40	7.54	8.23	8.03	7.39	7.39	7.42
국고채(3년)(B)	15.00	6.95	7.05	6.96	6.50	6.64	6.67	7.20	8.45	9.11	9.03	8.18	8.62	8.89
회사채(3년)(C)	28.98	8.00	8.13	8.65	8.10	7.52	8.37	7.96	9.23	10.26	9.95	9.02	9.72	9.87
B - A(%p)	-16.32	0.47	1.05	1.92	1.65	1.60	1.93	2.35	2.85	4.42	4.30	3.53	3.97	4.19
C - A(%p)	-2.34	1.52	2.13	3.61	3.25	2.77	3.63	3.11	3.76	5.57	5.22	4.37	5.07	5.17

주: 1) 12월은 18일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 지난 4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장·단기 금리차가 8월중 연중 최고치인 4.42%p 기록한 이후 하락하다가 12월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
- 이는 대우사태이후 정부가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금리하락을 유도하였지만 한국은행이 인플레이 압력우려로 통화긴축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고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무엇보다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기가 회복확장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금리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 연말을 앞두고 기업자금수요 증가 우려감과 더불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채권매수여력이 축소되고 있음.
- 또한 최근 투신, 은행 등 금융권의 만기불일치도 금리상승과 금리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정책으로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만기 3개월의 MMF 등 단기상품으로 들어 온 자금을 회사채 등 장기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운용이 불안해지고 있음.
- 아직까지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저금리 정책 기조를 주장.
- 수급차원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6조2000억원 발행예정인 국채를 3조2000억으로 줄이는 등 금리안정화 노력.

<표 23 > 은행여수신금리¹⁾

단위 : 연 %

	1997	1998				1999									
	12월	3월	6월	9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예금 평균 금리	11.1	14.7	13.0	8.9	7.3	6.9	6.7	6.2	6.00	5.96	5.89	5.96	5.98	6.09	
대출 평균 금리	14.6	16.9	16.5	14.3	11.3	10.8	10.3	9.8	9.33	9.06	8.93	8.86	8.83	8.71	
(대 기 업)	17.1	19.1	17.4	14.4	11.3	11.0	10.3	9.8	9.09	9.00	9.03	9.00	9.14	9.02	
(중 소 기 업)	14.3	16.5	16.2	14.1	10.9	10.1	9.7	9.1	8.56	8.39	8.24	8.18	8.12	8.06	
(가 계)	13.2	16.2	16.5	14.7	12.9	11.9	11.7	11.5	11.00	10.46	10.31	10.22	10.21	10.28	

주:1)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환율 및 외환보유고

- 1999년들어 외환시장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입,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외자유치 증가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은 공급우위의 상태 지속.
- 1999년 12월 15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726.6억달러를 기록하여 1998년 12월말대비 241.5억달러나 증가.
- 외화의 초과 공급상태가 지속되자 정부는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해 수급불균형 해소

노력.

<표 24> 외환보유고 및 거주자외화예금 추이

단위 : 억달러

	1997	1998	1999년					
	12월	12월	1/4	2/4	3/4	10월	11월	12월 ²⁾
외 환보 유 고	204.1	520.4	574.5	619.9	656.8	664.1	698.8	728.6
가 용 외 환 보 유 고 ¹⁾	88.7	485.1	544.5	604.3	654.8	662.1	696.8	726.6
거 주 자 외 화 예 금	45.4	95.0	105.0	88.9	80.5	88.0	93.8	-

주: 1) 가용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의 차이가 태국중앙은행과의 스왑한 2억달러만 남게 됨으로써 99년 8월부터는 외환보유액 통계를 가용외환보유액 개념으로 일원화.

2) 12월15일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 1999년들어 원·달러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기업의 외자유치 등으로 달러 공급위라는 시장여건과 정부의 강력 환율안정의지로 등락을 거듭.
- 원·달러환율은 정부의 시장수급여건 개선 노력과 외채만기 도래 등으로 1/4분기중에는 1,20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 2/4분기들어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외화차입 재개로 원·달러환율은 1,150원대 까지 하락.
- 3/4분기중 원·달러환율은 외환수급조절대책이 추진된 데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중국 위안화 절하 가능성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1,200원대로 다시

상승.

- 4/4분기들어 원·달러환율은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당초 우려되었던 무역수지도 예상 외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11월에는 1,126원대까지 하락.

<표 25> 환율추이

	1997	1998	1999					
	12월	12월	1/4	2/4	3/4	10월	11월	12월 ²⁾
₩/US\$	1,695.00	1,204.00	1,227.0	1,157.6	1,216.4	1,200.0	1,159.2	1,130.30
변화율 ¹⁾	-50.2	40.8	-1.9	4.0	-1.0	0.3	3.9	6.5
₩/100¥	1,291.36	1,059.91	1,017.8	956.61	1,148.73	1,142.70	1,126.34	1,097.04
변화율 ¹⁾	-43.7	21.8	4.1	10.8	-7.7	-7.2	-5.9	-3.4

주 : 1) 전년말 대비 절상(+), 절하(-)율(%)

2) 12월 17일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 OECD 지역경제는 1998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2.8%,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OECD).
-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일본 및 한국의 빠른 경기회복, EU국가의 경제전망의 개선 등에 기인.

<표 26>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IMF	OECD	IMF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3.7	4.3	4.2	2.5	3.0	2.8 ¹⁾	3.5	2.9 ¹⁾
미 국	2.3	3.4	3.9	3.9	3.7	3.8	2.6	3.1
일 본	1.5	5.0	1.4	-2.8	1.0	1.4	1.5	1.4
E U	2.4	1.8	2.7	2.8	2.0	2.1	2.7	2.8
아 시 아	9.1	8.2	6.6	3.8	5.3	-	5.4	-
세계 교역 신장률	9.6	6.9	9.9	3.3	3.7	4.9	6.2	7.1

주 : 실적치는 IMF 기준

1) OECD 평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9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11

미국

- 3/4분기중 미국경제는 내수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매분기 상승하고 있음.
- 2000년에도 이러한 경기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나 99년보다는 둔화된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표 27>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4/4	1/4	2/4	3/4
실질GDP 성장율	4.5	4.3	5.9	3.7	1.9	5.5
경상수지(억달러)	-1,435	-2,206	-617	-686	-807	..
소비자 물가상승율	2.3	1.6	1.6	1.6	2.1	2.3

자료 : 미 연준, IMF, 미 상무부

일본

- 3/4 분기중 일본경제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고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금년 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8월 일시 상승한 후 다시 하락 하였음.

- 일본경제는 2000년 상반기 이후부터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기업 및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지출과 설비투자 증가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표 28>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4/4	1/4	2/4	3/4
실질GDP 성장율	1.4	-2.8	-3.2	8.1	0.9	0.7 ¹⁾
경상수지(억엔)	114,363	157,845	40,002	29,927	32,525	32,666
소비자 물가상승율	1.8	0.6	0.6	-0.1	-0.3	0

주 : 1) WEFA 추정치
 자료 : 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

EU

- 유럽의 경기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2000년에는 소비자 심리 전환과 투자증가, 유로화 약세 및 수출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경기회복에 따라 큰폭의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 EU의 소비자물가 상승률(HICP 기준)은 1999년중 1.2%에서 2000년중 1.5%, 2001년중 1.6%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1999년중에는 유가상승 및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통신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

심화 및 명목임금 상승률의 안정 등에 따라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2. 원자재 가격

- 10월중 일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에 걸쳐 배럴당 평균 24달러 내외에 이르고 2000년 연간으로는 배럴당 평균 22달러 내외를 나타낼 전망이다(Brent油 기준).
- 곡물의 경우 쌀가격은 금년도 미국의 쌀 수확 호조에 따른 재고증가 전망으로 11월 중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소맥 및 옥수수 가격도 가뭄이 계속되던 미국 주요 재배지역의 해갈과 금년 가을철 수확 호조 등으로 10월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

<표 29>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기말기준, 연%

	1998	1999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¹⁾
WTI(달러/배럴)	12.14	19.33	20.52	22.15	24.54	21.79	27.22
Brent(달러/배럴)	10.54	17.18	19.50	21.07	22.90	21.16	25.85
쌀(달러/100파운드)	8.79	7.26	6.27	5.75	5.97	5.48	5.64
옥수수(센트/부셀)	213.5	211.3	203.3	205.3	208.3	199.5	191.3
소맥(센트/부셀)	276.3	250.0	263.8	264.8	275.8	255.8	235.8
동(달러/톤)	1455.5	1612.5	1608.5	1680.5	1756.0	1743.0	1743.8
원면(센트/부셀)	60.4	50.1	52.4	49.6	50.2	52.3	51.5

주 : 1) 11월 26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기말기준)

3. 국제금리 · 환율

-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12월 현재까지 대체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오름세를 지속 할것으로 전망.
- 향후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표 30> 국제금리

단위 : 기말기준, 연%

	1998	199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²⁾
미국재정증권(3월)	4.47	4.75	4.97	4.84	5.09	5.30	5.43
미국정부채(30년)	5.10	6.11	6.07	6.05	6.17	6.30	6.38
일본정부채(10년)	2.22	1.77	1.92	1.71	1.80	1.82	1.76
독일정부채(10년)	3.87	4.81	4.89	5.08	5.16	5.13	5.24
US\$ LIBOR(3월)	5.06	5.34	5.52	6.08	6.18	6.11	6.15
¥ LIBOR(3월)	0.54	0.10	0.09	0.24	0.28	0.32	0.33
EURO LIBOR(3월) ¹⁾	3.24	2.69	2.70	3.09	3.49	3.45	3.46

주: 1) 영국은행협회(BBA)가 런던소재 16개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집계, 발표하는 EURO화 금리

2) 12월 17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기말기준)

- 11월 들어 엔화는 102엔 대에 육박하는 초강세를 시현했으며 유로화는 달러화와 일대일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2000년 엔화 환율은 일본 경기회복과 미국의 완만한 경기하강세에 따라 엔화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그리고 유로화는 유럽의 경기회복으로 강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표 31> 주요국 환율

단위 : 기말기준, 연%

	1998	199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²⁾
US\$/SDR	1.4080	1.3642	1.3698	1.3877	1.3807	1.3696	1.3732
US\$/EUR ¹⁾	1.1668	1.0710	1.0576	1.0698	1.0548	1.0091	1.0087
US\$/£	1.6595	1.6227	1.6057	1.6468	1.6449	1.5985	1.6049
¥/US\$	113.45	114.50	109.54	106.33	104.14	102.10	103.17

주: 1) 98년까지는 ECU화 환율임

2) 12월 17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기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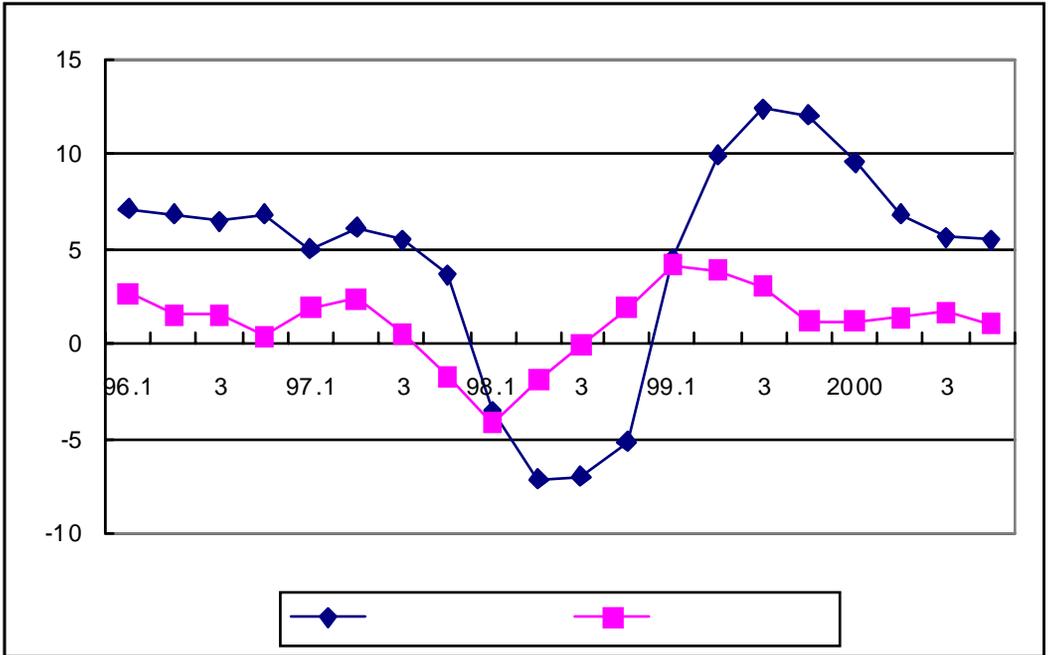
제 3 장

1999/2000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 우리경제는 '99년 1/4분기중 플러스(+)성장으로 반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2%내외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여 연간 경제성장률(GDP)은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하반기중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국내소비와 설비투자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률 (GDP)은 12%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특히, 하반기중 민간소비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고 4/4분기중 수출이 20%이상 확대됨에 따라 '88년이후 가장 높은 연간성장률(9.9%)을 기록할 전망.

<그림 3> 전분기대비 및 전년동기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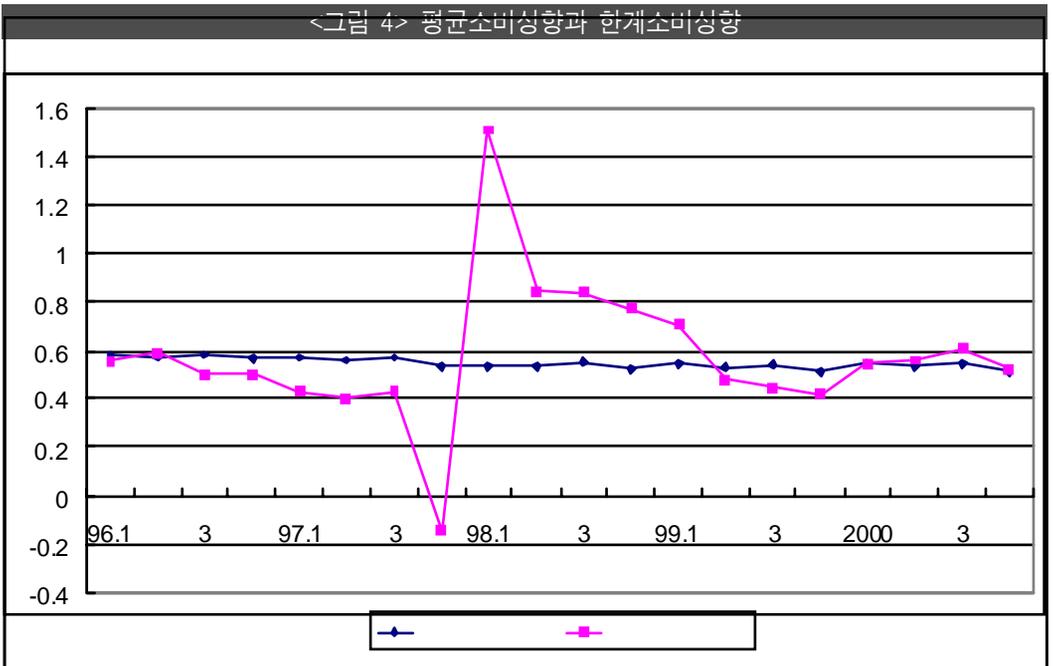
- 내수를 중심으로 한 수요증가가 더욱 현저해진 3/4분기중에도 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4/4분기중에는 농업생산 증가에 따른 재고 증가세가 예상되는 등 재고확충에 의한 성장효과가 플러스(+)로 반전한 것으로 판단.

<표 32> 재고변동의 성장에의 기여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1/4~3/4
재고증감(%)	0.6	-2.0	-5.6	5.1
GDP(%)	6.8	5.0	-5.8	9.0

- 2000년중에는 99년과 같은 반등효과는 없겠으나 1/4분기중 9%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이후에도 6%대의 안정적인 수요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6.7%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
- 98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효과는 2000년 1/4분기를 전후하여, 그리고 팽창적인 금융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시차효과는 2000년 하반기중 소멸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확대 추세가 내구재를 거쳐 비내구재 및 서비스재화로 파급되고 있고 임금상승과 실업률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안정되고 제한적이거나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등 구조조정과 경기추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2000년중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민간소비지출이 예상됨.

<그림 4> 평균소비심향과 한계소비심향



- 99년중 감소(-9.8%)했던 건설투자가 증가세(5.7%)로 반전하고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성장에 대한 기여가 증대할 전망. SOC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제약에 따라 민간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증가세가 건설투자를 주도할 전망.

<표 33> 국내경제전망(1999 / 2000)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 총생산	-5.8	4.5	9.9	12.3	12.1	9.9	9.5	6.8	5.6	5.4	6.7
(제조업)	-7.2	10.3	20.4	26.8	20.6	19.6	12.9	8.4	6.2	6.1	8.2
총소비	-8.2	5.1	7.4	8.5	8.4	7.4	8.5	7.0	6.4	5.9	6.9
민간소비	-9.6	6.3	9.1	10.3	10.4	9.1	9.6	7.9	7.0	6.4	7.7
고정자본형성	-21.6	-4.1	5.2	8.8	6.9	4.5	8.9	6.4	7.3	8.3	7.7
설비투자	-38.3	12.9	37.2	48.0	41.8	34.9	15.0	11.2	8.6	8.4	10.5
건설투자	-10.2	-13.7	-8.5	-10.0	-7.9	-9.8	4.4	3.4	6.3	8.2	5.7
생산자 물가	12.2	-3.5	-3.3	-1.9	0.2	-2.1	2.5	2.3	2.8	0.9	2.1
소비자 물가	7.5	0.7	0.6	0.7	1.1	0.8	2.8	3.1	2.8	1.9	2.6
경상수지	405.6	61.9	63.8	66.4	52.9	244.9	22.6	24.5	31.3	22.2	100.6
상품수지	416.3	67.8	80.1	71.9	64.2	283.9	30.5	39.2	41.5	35.8	147.0
수출	1321.2	314.8	357.3	364.6	408.1	1444.8	351.3	384.1	386.7	427.4	1549.5
증가율(%)	-4.7	-3.7	3.8	16.0	21.4	9.4	11.6	7.5	6.1	4.7	7.2
수입	904.9	247.0	277.2	292.7	344.0	1160.9	320.8	344.9	345.2	391.6	1402.5
증가율(%)	-36.2	7.6	20.8	40.5	44.8	28.3	29.9	24.4	17.9	13.8	20.8
서비스,소득,이전수지	-10.7	-5.9	-16.3	-5.5	-11.3	-39.0	-7.9	-14.7	-10.2	-13.6	-46.4
원화 환율 원/\$	1204.0	1227.0	1157.0	1216.0	1140.0	1140.0	1130.0	1120.0	1110.0	1100.0	1100.0
엔화 환율 엔/\$	113.4	119.0	121.0	106.5	108.0	103.0	102.2	101.5	100.8	100.0	100.0
회사채 수익률(%)	15.1	8.4	8.0	9.6	9.8	9.0	9.9	10.1	10.3	10.5	10.2

- 원하절상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주력품목의 시황 호조에 따라 수출도 7%이상의 증가가 예상됨. 특히 통화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경

제가 활기를 회복하고 있고 우려되었던 중국경제도 7%대의 성장이 예견되고 수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생산활동의 증가와 향후 경기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의 호전이 예상되나 당분간 4%내외의 실업률, 100만명 내외의 실업자수의 유지 전망.
- 예상보다 빠른 실물부문 회복과 정부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2월(8.7%)을 고비로 낮아져 10월중 4.6%로 낮아졌으나 최근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하락 속도는 크게 둔화.
- 2/4분기이후 취업자수가 2천만명을 넘었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15만5천명(11월중)으로 외환위기이전(97년 11월의 2,125만1천명)수준에 접근.
- 그러나 경기확장과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실업률은 4%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2. 물가부문

- 9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진 소비자물가상승세는 '99년 4/4분기중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1%내외의 상승에 그쳐 99년중 연평균 0.8%의 안정된 추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어 사상최저의 물가상승을 기록할 전망.
- 99년중 환율변동폭이 작아지고 유가를 제외한 국제원자재가격과 단위노동비용 등 각종 비용요인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아직 크지 않아 물가상승압력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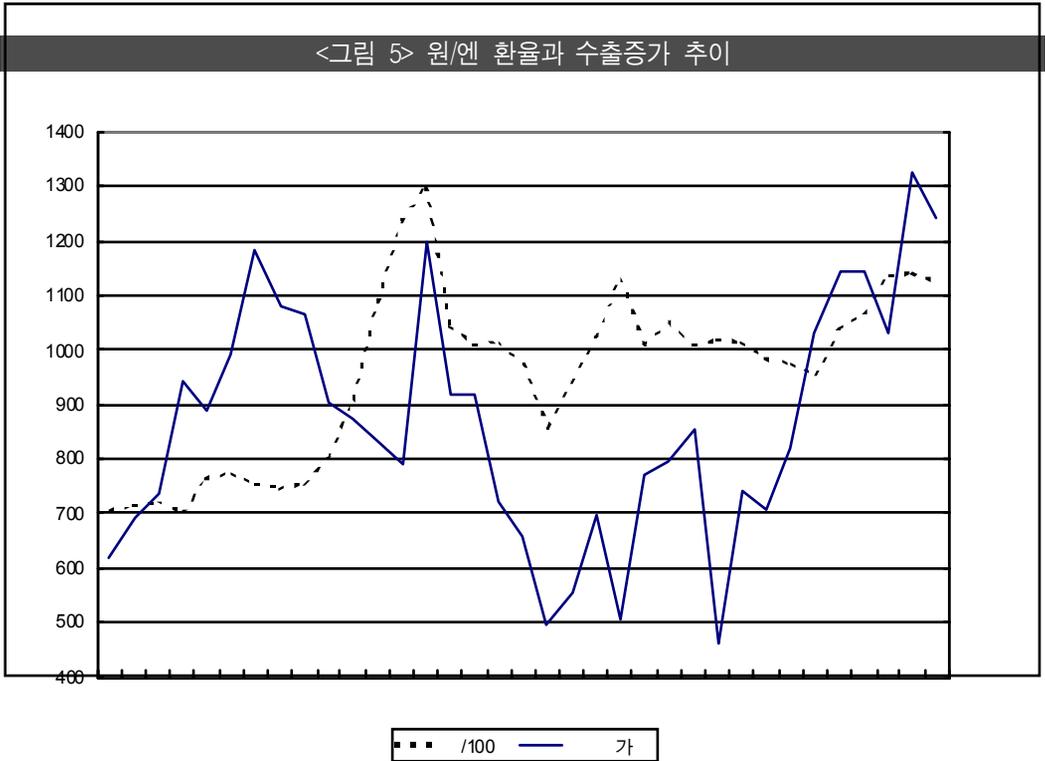
- 연중 환율은 국내외환수급을 반영, 지난 해 연평균 1,400원/\$에서 올해에는 1,170원/\$대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
- 재고증감을 제외한 GDP규모는 전년수준을 유지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중 총수요(GDP Gap)압력에 의한 물가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99년 4/4분기중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진 물가수준이 2000년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은 99년보다 높아진 2.6%에 달할 전망.
- 2000년중에도 5%내외의 원화절상이 예상되고 국제원자재가격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 2~3년간에 비해 큰 폭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
- 다만, 연중 환율이 국내외환수급을 반영, '98년 연평균 1,400원/\$에서 '99년 1,180원/\$내외에서 2000년에는 1,100~1,120원/\$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물가상승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부문

- 2000년중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9년 실적에 비해 반감한 150억불 및 100억불내외로 각각 전망.

- '98년중 400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흑자는 '99년 상반기중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126.9억불에 그쳤으며 하반기중 빠른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간 흑자폭은 240억불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2000년중에도 각 부문별 최종수요와 생산활동이 외환위기 이전규모를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수지 흑자의 축소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에 따라 GDP대비 경상수지는 98년중 13%수준에서 99년중에는 6.4%내외로 낮아지고 2000년에는 2.2%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산.
-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추세는 수출둔화와 수입증대에 따른 결과임.
- 99년 3/4분기중 16%, 4/4분기중 21.4%의 높은 증가를 기록중인 수출(국제수지기준)은 2000년중 지속적인 환율절상으로 한자리수(7.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연중 엔화환율은 95~105엔/달러내외에서 안정적인 변동이 예상되나 원화환율은 5%이상의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그림 5> 원/엔 환율과 수출증가 추이



- 반면 수입은 99년 하반기중 40%이상의 빠른 증가를 보인데 이어 2000년중에도 20% 내외의 증가 예상. 이는 그간의 재고감소와 실물경기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 '98년중 서비스 및 이진수지의 적자는 99년중 다시 확대되었으며 이같은 추세는 200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적자 규모는 '98년의 11.3억불에서 '99년에는 40억 불내외 그리고 2000년에는 97년수준에 접근한 46억불내외에 이를 전망.

4. 금융부문

통화정책

-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및 공공요금 상승 등과 더불어 물가 상승압력으로 2000년중 통화관리여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특히 내년 총선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 될 경우 통화당국이 단기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을 다소의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기업 및 금융부문의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중시의 통화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며 급격한 긴축기조 전환은 없을 예상.
-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마련 하는데 비중을 둘 전망.
- 물가상승 및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내외적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운용이 2000년중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00년중 M2증가율은 연평균 12.7% 정도로 예상되며 이 경우 통화공급규모는 1999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 M3증가율은 2000년 하반기 이후에는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투자관련 금융상품의 증대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확대될 전망이다.

- 2000년중 M3증가율은 상반기 11.0%, 하반기 16.6%로 연간 114.7조원의 M3기준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

<표 34> 주요 통화지표 전망

단위 : 조원, %

	1999(E)		2000(E)			
	연중	공급규모	상반기	하반기	연중	공급여력
본원통화	21.3(8.9)	1.7	21.0(0.5)	19.0(-12.8)	20.0(-6.3)	-1.3
M2	287.6(27.3)	61.6	307.6(12.9)	340.1(12.4)	323.8(12.7)	36.3
MCT	410.6(7.3)	27.9	418.6(5.0)	445.6(5.5)	432.1(5.2)	21.5
M3	831.2(9.9)	92.0	914.8(11.0)	977.1(16.6)	945.9(13.8)	114.7

주 : 평잔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기업자금사정

-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는 2000년중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다만 상반기중에는 구조조정의 지속,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대기업중심의 투자수요는 부진할 것으로 보여 자금수요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지속과 수익증권 환매 불안

감이 2000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 그러나 하반기이후 구조조정과 금융불안이 일단락 되면서 회사채, 주식, CP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내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들은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일정 정도 지속될 전망.

<표 35> 기업여신 및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전망

단위 : 10억원

	1998		1999(E)			2000(E)	
	잔액	증감	잔액	증감	1~11	잔액	증감
은행대출	246,975	-14,645	288,275	41,300	40,712	306,775	18,500
(원화대출)	200,289	-112	254,889	54,600	52,653	282,889	28,000
(신탁계정)	46,686	-14,533	33,386	-13,300	-11,941	23,886	-9,500
직접금융	332,581	30,778	517,600	22,300	21,662	623,000	65,000
(CP순발행) ¹⁾	72,154	-15,291	65,600	-6,500	-5,481	77,600	12,000
(회사채순발행) ¹⁾	122,682	32,580	121,400	-1,200	2,131	138,400	17,000
(주식발행) ²⁾	137,745	13,489	330,600	30,000	25,012	407,000	35,000
합계	579,556	16,133	806,891	63,600	62,374	930,821	83,500

주 : 1) CP 및 회사채의 증감은 순발행=발행-상환, 잔액은 CP=할인잔액, 회사채=발행 잔액

2) 주식발행의 증감=유상증자+기업공개, 주식발행의 잔액=시가총액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조사통계월보』, 『보도자료: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일일금융시장동향』

금융시장

- 2000년 상반기까지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워크 아웃의 순조로운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로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
- 2000년초까지는 수익증권 환매에 대비한 증권 및 투신사의 유동성 확보 노력도 계속될 전망.
- 자금시장 여건을 감안한 한국은행의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기조가 상반기중 이어진다면 단기성 자금의 유동성은 무난할 전망.
- 2000년중 총저축률 및 금융저축 규모가 1999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소득은 증대하는 반면 국민들의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 금융자산의 구성비가 미국식의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로 변화 예상.
- 1999년 하반기중 대우사태 및 투신사 구조조정의 우려감으로 시중자금이 일시적으로 은행권으로 역류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 전망.
- 2000년 하반기에는 주식등 자본시장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전망.
- 2000년말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정을 전후로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 사이에 시장질서에 의한 우열이 심화될 전망.

- 특히 공적자금의 투입 등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닌 시장질서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금융권이 재편될 전망.

장단기 금리

- 2000년 상반기 중 기존 2대 투신사의 공적자금 투입을 비롯한 투신사의 구조조정 진행 여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총선 전후까지 시장 불안심리가 상존.
- 콜금리는 1/4분기 중에는 5%이하에서 유지되겠으나 총선 이후에는 점진적인 통화긴축과 더불어 상향조정될 가능성.
- 통화당국이 점진적으로 긴축통화정책을 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콜금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전망이며 연간 전체 평균 5.6% 예상.
- 2000년 중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채권 매수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40조원의 만기도래 여파로 전반적으로 1999년보다 상승하여 연 평균 10.20% 전망.
- 1/4분기 중에는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지속, 투신사의 구조조정 여파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정부의 금리안정정책의 지속으로 9.90%에 형성 전망.
- 2/4분기 이후에는 경기여건으로 수렴되며 10% 초반대 수준에서 등락 예상.
-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통화긴축의 영향이 증대되어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

<표 36> 2000년중 장단기 금리 전망

단위 : %

	1999(E)	2000(E)				
		1/4	2/4	3/4	4/4	연간
콜	4.72	4.95	5.30	5.80	6.50	5.60
회사채	9.00	9.90	10.10	10.30	10.50	10.20

주 : 기간 평균

<표 37> 2000년중 금리관련 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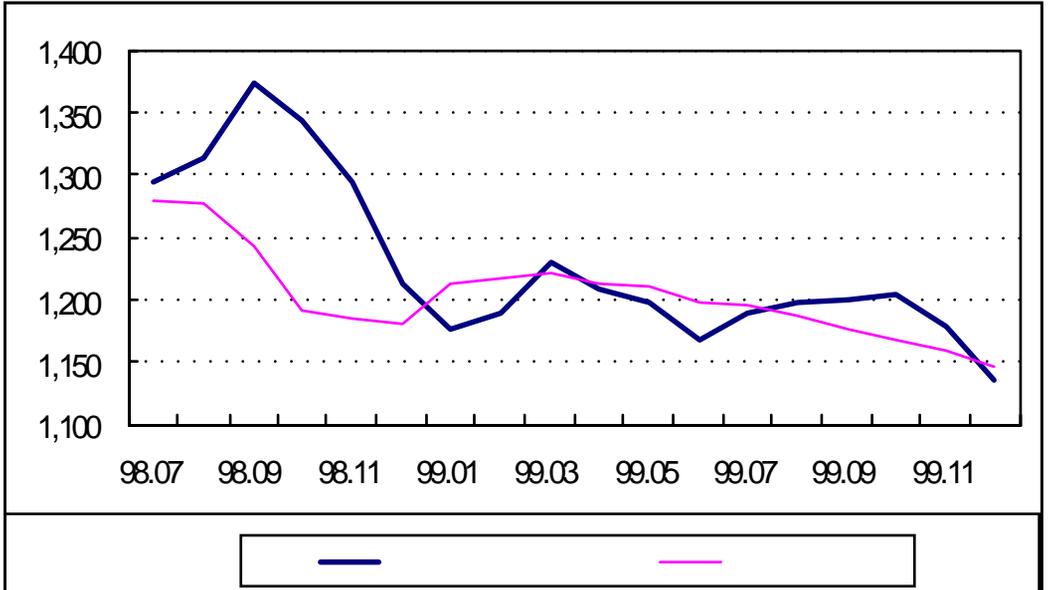
단위 : 기말기준, 연%

금리변수	전망
대외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신용도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성 · 해외수요 기반은 비교적 양호할 예상 · 엔화강세 기조 지속, 국제금리인상 추세, 고유가 지속 · 중국의 WTO 가입 추진 및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이후 통화당국의 물가상승 우려감에 따른 통화긴축 선회 · 누적 재정적자 개선 위한 긴축재정 편성
국내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 확대, 공공요금 인상, 임금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가중
기업 자금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여신한도 제도 개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 부채비율 200% 충족후 기업 경기회복 영향으로 자금수요 증대 전망
채권 시장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20조원 이상, 회사채 45조원 등 대규모 채권발행 예상 ·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구조조정관련 채권발행물량이 커질 가능성 · 회사채 상환 규모는 40조원 추정되며 일부 우량기업의 회사채 발행 예상 · 투신 구조조정 문제 등 불안요인 상존으로 시중 자금의 단기부동화 일정 정도 지속됨에 따라 채권 매수기반 취약

환율

-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 차원에서 원화의 균형환율은 1999년들어 지속적인 하락세.
- 하반기들어 원화의 과소평가가 지속되었으나 12월들어 과대평가로 반전.
-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11월말 현재 원화의 적정환율은 1160.26원/달러내외로 평가되나 11월말현재 1176.98원으로 1.4% 절하된 수준에서 절상압력을 받았음.
- 그러나 12월 20일 현재 실제환율은 1135원으로 실질실효환율기준 적정환율인 1146.88원을 하회하고 있음.

<그림 6> 실제환율과 적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2000년에도 원화의 과소평가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 2000년에는 외화 공급규모의 축소와 경기회복에 따르는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외화수급 불균형은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
- 2000년중 원·달러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연말 기준 1,100원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표 38> 2000년중 환율 전망

단위 : %

	1999(E)	2000(E)				
		1/4	2/4	3/4	4/4	연간
원 · 달러 환율	1140.0	1130.0	1120.0	1110.0	1100.0	1100.0
원 · 엔 환율	1097.0	1105.0	1090.0	1110.0	1100.0	1100.0

주 : 기간말기준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던 우리 경제는 금년들어 완전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5.8%)에서 반전하여 금년중에는 9%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더구나 국내물가는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7.5%(소비자물가 기준) 상승하였으나 금년에는 1%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 경제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 첫째,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정책당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가경제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고
 - 둘째,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의 비효율성 및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 셋째,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금리 정책이 성공하여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되는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복원된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렇듯 거시경제환경은 호전되고 급박한 경제위기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구조조정 과정상에 발생한 부작용을 내년도에 어떻게 치유하는 가가 향후 정책운영의 관건임.
- 그 부작용을 열거하면,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통화가 민간부문으로 대규모로 풀려나갔기 때문에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증가하고, 중앙은행의 IMF 차입으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급증하였으며
- 금융, 기업 구조조정으로 ‘은행불멸’,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하여 관치경제의 문제가 재현되고 있음.

2. 주요 경제현안 및 향후 정책방향

물가상승의 억제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책당국은 이전까지 지속되던 고금리 정책에서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거시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성공을 거두었음.
-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지출이 되살아남으로써 지난해의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한편 금년 하반기 이후 국내수요가 회복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점증함에 따라 긴축으로 선회하는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되고 있었음.
- 수요견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를 비롯한 국내수요의 증가로 인플레이 갭이 증가하고 있음.
- 비용상승 측면에서는 유가가 상승하고 임금수준이 회복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대우사태가 돌출함에 따라 선제적인 긴축통화정책의 기회를 상실하고 금융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

<표 39>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단위 : %

	인플레 압력요인	인플레 완화요인
총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과열: 98. 3/4분기 GDP 증가율이 12.3%를 기록하여 잠재성장을 수준인 5~6%대를 상회하여 상당한 인플레이션 발생 · 통화팽창: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원활한 통화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이후 기업들의 과투자 행태 지양으로 기업의 투자자금수요 감소 · 개방화, 인터넷 유통을 비롯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조절기능 제고 ·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평균소비성향 감소
임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회복세가 확산됨에 따라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 · 총선과 맞물린 노조활동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에 가까운 실업률에 따른 대규모 잠재 노동공급세력의 존재 · 노동시장 유연화, 임시·일용직의 증가에 따른 고용조정 가능성 증가
유가·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C의 감산 지속으로 국제유가 고수준 유지 ·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경기 회복으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중 주식투자자금 및 해외 직접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절상 예상

- 특히 최근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시중자금이 단기, 부동산자금화하면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IMF를 거치면서 경제체제의 전환, 예를 들어,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의 자금가수요 현상 해소 등으로 과거와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5%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더불어 금리상승 기대감이 이미 팽배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됨.

- 실세금리수준인 회사채금리는 12월 중순 현재 9.8%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내년도 실세금리 수준이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6.7%, 예상 인플레이션율, 2.6%인 점을 감안하면 위험프리미엄을 제외한 적정 장기금리 수준은 9.3% 수준에 그침.
- 그러나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4.9%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단기 금리차가 4.9%p에 이릅니다. 이러한 과도한 장단기금리차는 시장참가자들의 금리상승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
- 정책기조의 긴축 전환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예상하고 그 집행시점도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반영.
- 따라서 특정시점 이후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실물경제에 과도한 위축 현상을 초래시키지 보다는 콜금리를 아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일방향의 금리상승 기대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자본유출입의 증가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통화·재정·외환정책은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제반 교란요인을 감안하여 조화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¹⁾

1) 중앙은행이 국내부문 경로를 통하여 본원통화를 공급(환수)하는 경우 그중 얼마만큼이 자본유출(유입)에 의하여 상쇄되는가를 나타내는 통화정책상쇄계수(offset coefficient)는 -0.5에 가까워서 중앙은행 통화공급(환수)분 중 거의 절반이 자본유출(유입)에 의해 상쇄되고 있고, 자본유출입에 의한 통화정책 교란요인을 중앙은행이 불태화정책을 통하여 얼마만큼 중화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불태화정책계수(sterilization coefficient)는 92년 자본자유화 이후 -1에 달하여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변동의 대부분을 불태화를 통하여 대부분 중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국, 1999.11)

- 통화정책방향 설정시 자본유출입 및 환율 전망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환율변동을 신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운용간의 조화로운 연계가 필요.
- 예를 들어 완만한 금리인상과 더불어 원화절상을 용인하는 것이 내년도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인상과 환율절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조합의 경우가 금리인상이나 환율절상만을 단독으로 집행하는 정책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명됨.

<표 40> 정책조합에 따른 내년도 전망

단위 : %

	1999년	2000년			
		기본 전망(A)	금리인상(B)	환율 절상(C)	금리인상/환율절상(D)
		환율: 1,100원/\$ 금리: 10.2%	금리: 11.2%	환율: 1,050원/\$	환율: 1,075원/\$ 금리: 10.7%
성장률 (%)	9.9	6.7	6.4	6.1	6.3
소비자물가 (%)	0.8	2.6	2.4	2.2	2.2
경상수지(억달러)	244.9	100.6	104.3	80.4	91.4

국가채무부담의 완화

-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임.
- 최근에는 대우사태의 여파로 투신권 및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으로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함.

<표 41> 국가 채무 추이

단위 : 조원, 연말 잔액 기준

구 분	'96	'97	'98	'99 ^E
중앙정부 채무(A)	36.8	50.5	71.4	94.2
지방정부 채무(B)	12.9	15.1	16.2	17.6
정부채무(A~B)	49.7 (11.9)	65.6 (14.5)	87.6 (19.5)	111.8 (22.6)
한국은행 IMF차입(C)	0.0	0.0	19.4	7.2
정부 채무보증(D)	7.6	13.0	72.0	83.0
국가채무(A~D)	57.3 (13.7)	78.6 (17.3)	179.0 (39.8)	202.0 (40.8)
통안증권(E)	25.0	23.5	45.7	51.9*
광의의 국가채무(A~E)	82.3 (19.7)	102.1 (22.5)	224.7 (50.0)	253.9 (51.3)
명목 GDP	418.5	453.3	449.5	494.5**

()내는 명목 GDP에 대한 백분비

* 99년 8월말 잔액

** 98년말 대비 10% 증가로 전망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 IMF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정부채무(Government Debts, A+B)는 IMF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명목 GDP와 대비하여 볼 때 96년 말의 11.9%에서 98년 말에는 19.5%로 증가하였고 금년 말에는 2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가채무(A+B+C+D)는 96년 말의 명목 GDP 대비 13.7%에서 금년 말에는 40.8%로 급증할 전망이다.

-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은행의 IMF 차입(C)이 증가하였고,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D)이 급증.
-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에 해당하는 통안증권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A+B+C+D+E)는 99년 말 254조원으로 전망됨.
- 이는 명목 GDP의 51%에 달하여 국가채무 문제가 향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 증가, 공무원 연금의 적자누적,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의 균형 회복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수지 건전화에 대한 대책이 긴요함.
-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 개편으로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편성체제 구축 등으로 지출규모를 제약하는 동시에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수입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완결과 시장원리 경제시스템의 구축

- 은행 및 제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6대 이하 대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작업 등으로 금융 및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경제내의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이 제거되어 왔음.
- 더구나 대우문제의 처리로 ‘대마불사’라는 경제주체에 만연되었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금융,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관치 경제, 관치 금융의 행태는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기금 출연 요구, 금융기관에 대한 하이일드펀드 가입 요구의 예에서 보듯 금융감독권이 남용됨에 따라 관치금융의 관행이 재현되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시장개입으로 표면적인 금리안정을 이룬 반면 채권거래량이 급감하여 채권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일일 채권거래규모가 채권안정기금의 시장개입이후 약 17% 감소).

<표 42> 채권안정기금 개입(9/27) 전후 채권거래량

단위 : %

	일일 거래대금*		기간대비 증가율
	1/4-9/22	9/27-12/18	
국 채	1조 4,450억	1조 950억	-24.2%
회 사 채	1조 5,788억	1조 1,890억	-24.7%
채권총계	5조 2,425억	4조 3,670억	-16.7%

* 장외거래실적, 영업일 기준

자료: 증권업협회

참조: 연중 거래금액은 98년중 197%, 97년중 22% 증가하였음

- 정부가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산업은행을 통하여 민간기업들을 결과적으로 국영화하였음. 10개 은행, 8개 보험사, 2개 투신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이며, 워크아웃 대상 105개 기업체도 사실상 정부의 경영권 하에 놓여 있음.

- 따라서 금융,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완결되어감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운영을 탈피하고 시장중심의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 보유 주식의 효과적인 매각방안과 일정을 수립하여 공적 자금의 회수 뿐만 아니라 민간주체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8/23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규정 대폭 정비(시행일자 9. 1) -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자 확대 - 융통어음의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 외은지점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점별총액대출한도 배정 허용 - 비제조 지방특화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점별총액대출한도대출 지원 - 한국은행 일시부족자금대출 차입금융기관의 통화안정계정 예치 의무 폐지 -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제정
8/26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공개시장조작 참가 허용 - 기존의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이외에 투자신탁 운용회사도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회사(은행)를 통하여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에 참여를 허용
9/13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매입 대상채권의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 유동성 조절을 위한 RP매입시 액면가격의 7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국채(정부보증채 포함) 및 통화안정증권의 담보인정비율을 85%로 상향 조정
9/17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감독규정」 개정(시행일자 1999.12.31)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적립제도를 도입 - 분기공시제도 도입
9/18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대책」 발표 - 대우채권 환매원칙(기간별 50~95%)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보장 -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 - 채권시장 안정기금 설립 추진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9/21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등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 -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기관 확대등
9/21	경제정책조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확정 -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대주주·계열그룹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 등과 자금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9/29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거래소에 국채선물 도입 - 도입배경 :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하여 위험관리 및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
10/4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발표 - 금리의 한자리 수 유지 -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해소
10/13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징후 및 요주의 관찰 대상은행 선정을 위한 리스크 조기경보 제도 도입 방안 발표 - 사전예방적인 건전성감독 강화 측면에서 은행의 위험 수준 및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리스크 조기경보모델을 개발·운영
10/20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익채권의 유동성 제고 대책 발표 - 투신사에 High Yield Fund를 허용하는 한편 투신사·증권사·은행등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수익등급채권을 집합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또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의 형태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제고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0/25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제 개편 방안 발표('99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도입 되었으나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 금번 조치로 특소세 폐지 대상품목의 약 10~12%의 가격 인하 효과 발생 예상
10/29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시장에 상장·등록된 국내기업 원화증권 취득시 신고 예외거래로 인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증권취득 한도 상향조정 - 여행자카드* 제도 신규 도입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매입자는 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US \$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 대비(%)		전년 동 기 대 비 (%)					
1994년	8.3	10.8	8,998	8.2	1.9	10.7	23.9	3.7
1995년	8.9	11.3	10,823	9.6	0.8	11.9	18.1	8.0
1996년	6.8	6.8	11,380	7.1	8.2	7.3	9.1	6.1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5.8	-7.2	6,823	-9.6	-0.1	-21.1	-38.5	-10.2
1997년 3/4	5.5	7.9	-	5.3	2.3	-3.6	-12.6	2.7
4/4	3.6	4.9	-	-0.1	-0.4	-7.2	-25.9	4.5
1998년 1/4	-3.6	-4.6	-	-9.9	1.3	-20.6	-38.3	-5.9
2/4	-7.2	-10.4	-	-11.2	-0.7	-23.7	-46.1	-7.8
3/4	-7.1	-9.1	-	-10.4	-0.6	-22.2	-39.3	-12.0
4/4	-5.3	-4.7	-	-6.9	-0.4	-17.9	-27.4	-13.7
1999년 1/4	4.5	10.3	-	6.2	-1.7	-4.3	12.9	-13.7
2/4	9.9	20.4	-	9.1	-2.3	4.9	37.2	-8.5
3/4	12.3	26.8	-	10.3	-1.3	6.9	48.0	-10.0

무역 · 국제수지								
연 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 환보유 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2년	766.3	6.6	817.8	0.3	-17.6	-39.4	171.5	788.4
1993년	822.4	7.3	838.0	2.5	23.2	9.9	183.0	808.1
1994년	960.1	16.8	1,023.5	22.1	-28.6	-38.7	224.1	788.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239.9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6	-230.0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5.6	485.1	1,204.0
1999년 2월	93.4	-16.8	76.4	-3.2	22.0	18.2	519.6	1,222.4
3월	116.6	-2.9	93.1	12.3	28.3	21.7	544.5	1,227.0
4월	115.0	-4.6	90.8	10.7	26.1	16.4	563.8	1,188.0
5월	114.3	1.1	94.5	24.6	26.2	22.9	587.3	1,186.2
6월	128.5	11.7	101.9	31.6	27.8	24.5	604.3	1,155.9
7월	117.7	17.4	97.6	37.7	29.5	28.0	639.8	1,206.9
8월	113.9	17.3	98.4	38.2	16.2	14.1	647.8	1,184.6
9월	119.2	11.6	101.1	39.4	26.2	24.3	654.8	1,218.7
10월	134.4	26.4	113.5	48.4	27.1	21.0	662.1	1,200.5
11월	142.6	22.2	117.4	41.0	-	-	696.8	1,157.5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실업·이자율								
연 월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 ₂	MCT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평균	기간평균	
1993년	1.5(2.0)	4.8(5.8)	2.8	10.9	18.6	22.9	12.6	728.2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3.2(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4	652.9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5.1	408.6
1999년 3월	-4.3	0.5	8.0	13.1	33.7	6.9	8.6	586.2
4월	-4.1	0.4	7.1	12.6	34.6	6.9	7.6	721.1
5월	-2.6	0.8	6.4	13.9	30.6	6.3	8.3	745.4
6월	-3.2	0.6	6.2	14.8	27.1	5.9	8.1	841.4
7월	-2.9	0.3	6.2	14.2	24.2	6.1	8.6	971.4
8월	-1.6	0.9	5.7	17.2	25.0	7.8	9.9	933.1
9월	-1.1	0.8	4.8	25.9	26.9	10.3	10.4	926.9
10월	-0.2	1.2	4.6	-	24.1	10.0	9.1	828.6
11월	0.6	1.4	-	-	-	-	9.5	950.1

주: 2) ()는 전년 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기계류 수입 ⁶⁾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 대비(%)										
1993년	4.4	77.9	8.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8.7	80.8	7.0	5.8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5.3	79.0	3.2	-1.8	3.3	-22.8	5.4	-0.4	-26.2	2.6
1998년	-7.3	68.1	-12.7	-21.4	-30.5	-52.9	-42.5	-55.0	-68.2	-50.3
1999년 2월	3.9	69.7	7.4	11.8	-1.0	-12.7	-52.0	-50.5	30.0	-57.6
3월	18.8	74.7	8.3	19.5	15.8	28.3	-51.1	-29.6	36.2	-37.9
4월	17.1	74.1	9.0	13.6	23.6	4.2	39.3	4.1	64.5	-4.0
5월	21.7	76.6	9.4	17.8	40.5	15.0	89.6	46.5	299.4	49.5
6월	29.7	79.7	14.2	20.3	51.1	46.9	-6.2	16.8	272.3	5.6
7월	33.1	80.8	18.6	23.3	29.4	43.2	0.1	49.0	243.7	39.6
8월	29.7	78.6	18.3	30.9	29.1	45.0	1.2	109.3	288.4	114.3
9월	18.3	79.0	13.9	18.2	9.2	48.0	36.5	81.6	204.5	111.5
10월	30.6	78.6	15.7	26.2	24.2	58.4	33.9	277.7	355.2	358.8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6) 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1999년 12월 28일

1판1쇄 발행/1999년 12월 30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최승희

편집인/이수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199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3,000원